

사가라의 안 믿은 믿음

Zachariah, An Unbelieving Believer

누가복음 1:5-2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2월 17일 설교

⁵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⁶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⁷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⁸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⁹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¹⁰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¹¹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¹²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¹³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¹⁴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낳을 기뻐하리니 ¹⁵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¹⁶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¹⁷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¹⁸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¹⁹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²⁰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리라” 하더라.

안 믿은 기도

미국 중부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의 한 마을에 있는 교회가 비를 간구하는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말라버린 별판 한가운데 온 교인이 모였습니다.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비를 구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응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더 커졌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우산은 왜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Where are your umbrellas then?)

영어 유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이름까지 나오는 걸 박선 정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렇게 믿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 비를 주실 줄 믿으면 우산을 갖고 와야지 왜 그냥 왔습니까? 이거 믿음 맞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된다 하셨는데 우산도 안 갖고 왔으니 비를 주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산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우산을 왜 안 갖고 왔느냐 물은 목사가 오히려 잘못입니다. 우산 안 갖고 와도, 정말 비가 올 건지 잘 몰라도, 믿음의 기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 응답하십니다. 한 마디로 그런 기도도 믿음의 기도 맞습니다.

베드로의 탈옥

우리가 보기에는 안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지난 번 살펴 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마침 큰 명절이어서 명절이 끝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큰 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기 전날 밤,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그 밤에는 온 교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녀석 좋게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 깨워 깨우시고 죄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문도 열어 주셔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교인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저를 살려 달라는 그 기도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문을 열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놀란 나머지 문도 못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회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애가 들었나?” 그 아이가 “정말이에요!” 하니 이번에는 “베드로의 천사였을 거야” 하면서 또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옥에서 도망을 쳤으니 겁도 났을 텐데 빨리 문부터 안 열어주고 웬 소란입니까? 베드로가 계속 부르니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정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머처럼 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옥문을 활짝 열고 베드로를 꺼내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베드로가 저기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저 목사가 들었나?”

하나님을 믿음

우산은 왜 안 갖고 왔느냐, 이 물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잡혀들어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고생 안 하게 해 달라고도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달라는 기도도 했겠지만 우선은 살려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준 아이를 미쳤다고 나무랐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보았을 때도 그저 놀랐습니다. 원문대로 냅을 잃었습니다. 열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온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왔다면 그게 오히려 놀랄 일일 것 같은데 이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 놓고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뜻밖의 일인 것처럼 어리벙벙했습니다.

이들이 못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것 같은 그 모습에 믿음이 들었습니다. 우산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기 믿음이 있듯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는 건 미친 짓이라 생각한 거기 믿음이 있습니다. 내 비가 올 줄 알았지 하고 우산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난 베드로가 꼭 살아 돌아올 줄 알았다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뭘 믿음입니까? 기도한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니 기도합니다. 가뭄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교회는 즉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고 누굴 붙들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사가라는 몇 주 전에 살핀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두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는데 꺾데기만 지킨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던 두 사람의 삶에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으뜸이 자식 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정반대입니다. 경건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녀도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고 흘러 두 사람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검사도 받아보고 시험관 아기 같은 방법도 써 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라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가라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안 믿은 사가라

그랬더니 사가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저도 집사람도 나이가 좀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고 겸손하게 묻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분위기를 담아 다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제 집사람 나이도 아시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에이, 하나님 농담도!” 그런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이견 말이 안 된다는 소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했지요. 그렇지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천사가 답답했는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믿었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병어리가 될 것이다.”

천사가 전해 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벌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말을 못 하는 벌입니까? 말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펄쩍 펄쩍 뛰어도 모자랄 판에, “에이, 하나님 농담도” 그랬으니 “그 입 다물라!” 하시는 거지요.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그 마음에 재갈을 먹이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가라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진짜 맞지요? 믿음의 기도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기도 안 한 사람한테도 자식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천사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했으니 믿음으로 드린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압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자식이 전부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중에 말한 것처럼 자식을 못 낳는 건 치욕이었습니다 (눅 1:25). 낳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식을 보기에선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런 것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이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런 생각도 사치입니다. 너무 아프고 답답해 가만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니고 누구한테 쏟아 놓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사라와 사가라

사가라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가가 장막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웃은 게 아닙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웃었습니다. “사가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나이가 구십입니다. 당시 수명이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구십이면 할머니입니다. 게다가 이미 폐경까지 됐습니다. 폐경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라야, 너 웃었지?” 하시니까 사가가 당황해서 “안 웃었습니다” 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안 믿은 저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지요.

사가가 웃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가가 웃긴 했지만 이 말씀에는 아멘! 했습니다. 아들을 주마 하실 때는 “에이, 하나님 농담도!” 하고 웃었지만, 그렇게 웃을 때도 사실 사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히 11:11). 워낙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서, 하도 엄청난 일이라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는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병어리로 지낸 기간은 사가라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총만한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미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도 엄청난 일이라 한 순간 농담으로 치부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순간, 잠시 비틀거리던 두 다리가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천사의 한 마디에 내가 병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자식도 주실 것입니다. 병어리로 지낸 기간은 속으로 찬양과 감사가 끊어오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자마자 크고도 깊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믿음

비를 간구하는 기도회에 우산까지 가져 갈 정도로 믿음이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성경

의 인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농담으로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워낙 놀라웠기 때문이지 이들의 믿음이 모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못 믿었지만 금방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못 믿은 그 순간에도 이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마구 요구한 다음 미썬미다 하고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의 믿음은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달라 하듯이 내 욕심으로 위쉬 리스트 길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퍼 놓고 미썬미다 하는 그런 엉터리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뭐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찾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뭘 어떻게 구해야 될 지도 모르고 있을 때,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 많지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것도 주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 안 주시겠습니까? 답답한 일은 또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털어놓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다쳐서 몸이 아프고, 배신당해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낮게 해주세요, 싸매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요? 살아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니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하는 그제 이미 믿음인데,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도, 그제 잘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서 안 이루어지는 걸까? 가끔 궁금할 때도 있지요? 안 믿는데 기도는 왜 했을까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필요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필요한 그제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보다 높으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 좀 무리다 싶은 걸 구할 때도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다 힘든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주실지, 이루어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주실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옛다 하시는데도 농담이라고 받아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립니다. 안 드릴 수가 없어 드립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정과 교회와 모두의 유익을 위해, 참 억지스러운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에 잠시 가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세상,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시 의심하였던 사가랴의 모습은 기도하면서도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가랴도 우리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권수경 목사)